

홍 석 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민족 중심 서술 분석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진 수 지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민족 중심 서술 분석

홍 석 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진 수 지

인 준 서

진수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교과서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혹시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민족주의가 역사 교과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단원 구성과 서술 비중 등 서술 체제를, 3장에서는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서술 체제와 서술 내용이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 같은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 체제와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족을 강조하는 다양한 서술 체제와 서술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이 독립된 국가를 영위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출현하여 독립 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된 민족 중심의 역사관이 정치적 독립을 회복한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은 학생들에게 국가라는 틀에 맞추어진 역사만이 전부인 것처럼 역사를 인식하게 하여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특히 다양한 인간의 삶 가운데 국가와 민족 단위의 삶만이 중요하다는 인식, 국가와 민족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과서가 특히 일제시대를 서술함에 있어서 다양한 역사 주체들의 삶을 쟁점으로 하는 서술,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벗

어나 구체적 사실과 성격들을 제시하여 논리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술, 민족 독립 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일상 생활사까지도 반영하는 서술 등을 하여 민족 중심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 서술에서 벗어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역사 교육계가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민족 운동 중심의 교과서 서술 체제	4
1. '침략과 저항' 중심의 단원 구성	4
2. 독립 운동 중심의 서술 비중	9
III. 민족 중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2
1. '민족'만을 단위로 하는 역사 서술	12
2. 민족 문화 수호 중심의 역사 서술	18
3. 분단 국가주의와 임정법통론	23
IV. 결론	28

참고 문헌

ABSTRACT

I. 서 론

중·고등학교 『국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들은 책 제목에서부터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많은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을 해왔다.¹⁾ 그 중에서도 특히 먼 옛날부터 한국이라는 지역이 안정되게 존재하고 있었고, 한국인이라는 단일 민족이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한국 문화가 자립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역사 과정의 위기가 국가나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리거나 역사 서술의 주어 상당수가 '우리 민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 가정하며 역사를 서술하게 되어 역사의 확대, 과장, 축소, 왜곡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²⁾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려면 올바른 사관을 가진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³⁾ 이를 위해 현재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등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이 어떻게 민족 중심으로 서술되었는지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지금까지 국정 체제로만 발행되어오던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하는 편향적이고

1) 김한중, 「지배이데올로기와 국사교과서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7, 1991

배진우, 「중학교 국사 교과서 고대사 영역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서술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2008

전중익,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조연주, 「국정 중등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담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7

2) 김기봉,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 : '무기의 비판'인가 '비판의 무기'인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3

3) 손화성, 「'독립운동사' 서술을 둘러싼 논쟁과 대안」,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민족 중심적인 사관에서 벗어나 많은 연구 성과들과 새로운 인식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서술상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 분석 대상 교과서

교과서 종류	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약칭
국정 교과서	중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 인적 자원부	2002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 인적 자원부	2002	고등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 인적 자원부	2006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
검정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출판사	김한중 외 5인	2007	금성
		두산	김광남 외 4인	2007	두산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주진오 외 5인	2007	중앙

이를 위해 <표1>에 제시한 것처럼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3종⁴⁾과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⁵⁾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모든 시대를 분석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일제시대⁶⁾' 서술과 관련된 내용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모두를 분석

4) 제7차 교육 과정이 중간에 부분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도 달라졌는데 이번 연구의 서술 체제와 내용 분석을 함께 있어서는 주로 2006년에 개정된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5) 2009년 현재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검정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금성, 두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법문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천재 교육 등에서 출판된 6종이 있다.

6) 국검정 교과서에서는 1910년~1945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제강점기' 또는 '일본의 한국 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일제시대'로 지칭할 것이다. 다만 교과서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용어상에 반영된 역사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성, 두산, 중앙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근현대사』 교과목을 가르치는 전국 1716개 고교 중에서 889개 학교가 금성을 사용하여 51.8%의 채택률을, 261개 학교가 두산을 사용하여 15.2%를, 219개 학교가 중앙을 사용하여 12.8%를 차지하는 등 3개의 교과서가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였기 때문이다.⁷⁾

7)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전국 고교 현황」, 『조선일보』 2008년 11월 27일자 기사 참고

II. 민족 운동 중심의 교과서 서술 체제

1. '침략과 저항' 중심의 단원 구성

중·고등학교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전체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민족'이라는 말이 단원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일제시대' 부분을 서술할 때부터이다. 이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신분이나 계층을 넘어 공유된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일제시대 부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외세의 억압이 강해지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그동안 다소 모호하고 산발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강한 응집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망의 위기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이념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 독립 운동의 기본 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 운동의 토대를 이루는 이념으로 성장하였다.¹⁾ 또한 당시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이 시급했고, 안에서의 근대화보다 '밖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기에 저항 민족주의의 길을 밟게 되었다.²⁾

이로 인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제시대를 서술할 때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이 항일 독립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는 논리를 담기 위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특히 더 강조하는 민족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과 저항, 혹은 반민족과 민족의 서사 구조를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근대 주체', 특히 "역사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삶과 투쟁이 실제와 다르게 묘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민족을 저항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게 되고 일제와 대립적인 모든

1) 박찬승, 『민족주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2) 최용규,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것을 민족적이라고 서술하게 되어 모든 반일 행위가 민족주의적 행위로 바뀌기도 한다. 결국 민족 중심의 서술을 하게 되면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민족 중심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2> 국정 교과서별 일제시대 부분 단원 구성

구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중학교 『국사』	IX.민족의 독립운동	1. 민족의 수난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의 실상은?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은? 우리 민족이 민족 말살 통치하에서 겪은 고난은?
		2. 3.1운동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활동은?
		3. 독립 전쟁의 전개	독립군의 무장독립전쟁이 거둔 성과는? 애국 지사들은 어떤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는가? 한국 광복군의 조직과 활동상은?
		4. 국내의 민족 운동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방향은?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 민족이 민족 문화의 수호를 위해 벌인 노력은?
고등학교 『국사』	VII.근현대의 흐름	1. 근현대의 정치 변동	3) 민족의 수난과 항일 독립 운동
		2. 근현대의 경제 변화	2) 일제하 민족 경제의 변화
		3. 근현대의 사회 변동	2) 민족 독립운동기의 사회 변화
		4. 근현대의 문화의 흐름	2) 민족 문화 수호 운동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	III.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5. 근현대의 정치	3) 민족의 수난과 민족 항일 운동
	IV.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5. 근현대의 경제	2) 일제의 경제 침탈과 민족 경제 운동
	V.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5. 근현대의 사회	2) 일제 강점기의 사회 변화
	VI.민족문화의 발달	5. 근현대의 문화	2)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과 국학 운동의 전개

먼저 <표2>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사』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민족의 독립 운동"이라는 대단원 아래 "민족의 수난, 3.1운동, 독립전쟁의 전개, 국내의 민족 운동" 등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항기와 현대 부분을 서술할 때는 시대 구분을 통해 단원명을 설정하였는데 일제시대 부분을 서술할 때는 "민족의 독립 운동"이란 제목으로 대단원을 구성하여 그 안에 중·소단원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 통치보다는 독립 운동 전개에 주안점을 두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시기의 모든 움직임을 반일 독립 운동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그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강조하게 된다. 실제로 일제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일제시대를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에는 "Ⅶ. 근현대의 흐름"이라는 대단원에서 일제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분류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³⁾이 중학교 『국사』의 단원 구성과 달랐지만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달리,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는 대단원 내에서의 분류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대단원을 세분화 시켜 각 시기별로 논하고 있다.

<표3> 검정 교과서별 일제시대 부분 단원 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금성	중앙	두산
3.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1장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	1) 20세기 전반의 세계 2)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피탈 3) 식민 통치 체계의 구축과 전개 4) 경제 수탈과 민중의 생활 5) 전쟁 동원과 군 위안부 징용	1) 20세기 전반의 세계 2)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피탈 3) 민족의 수난 4) 경제 수탈의 심화	
	2장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 3.1 운동 이전의 민족 운동 2) 3.1 운동의 전개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3장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1) 국내 항일 민족 운동 2)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 3) 192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 4) 193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 5)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4장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1) 민족 실력 양성 운동 2) 민족 협동 진선 운동 3)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 4) 사회 각 계층의 자각 5)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과 시련	1) 사회적 민족 운동의 전개 2)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3)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의 전개 4)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	
	5장 민족 문화 수호 운동	1) 일제의 식민지 교육문화 정책 2) 국학 운동의 전개 3) 교육과 종교 활동 4) 문학과 예술 활동	1)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 2) 국학 운동의 전개 3) 교육과 종교 활동 4) 문학과 예술 활동	

* 표의 공란은 단원 구성이 중앙과 동일한 경우이며, 중앙과 다른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함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표3>에서처럼 "3.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라는 대단원 아래 5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1.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처럼 일본의 침략을 서술하는 단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비해 일본에 대한 저항 활동을 제시하는 단원은 "2.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등 무려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도 단원 구성을 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 통치 보다는 독립 운동의 전개에 주안점을 두어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제시대를 "침략과 저항"의 틀 속에서만 서술하게 되면 민족 구성원 모두를 단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이나 계급 간의 관계와 양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책임을 모두 일제에 떠넘김으로써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왜 조선만이 식민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도 어렵게 한다.⁴⁾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엔 식민지화 원인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기존의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는 달리 침략과 저항의 단순 구도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곧 '식민지 근대화' 조차 부정하거나 언급을 자제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두산의 경우 한 쪽 분량으로 '사진으로 보는 풍경'에서 여섯 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일제 강점기 도시의 풍경을 영상으로 전달하려고 하였고,⁵⁾ 금성의 경우에는 두 쪽 분량의 '역사 찾기'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사회의 달라진 것들'이란 명확한 제목 속에서 도시, 교통, 여성, 대중문화 형성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며 토론 과제를 주고 있기도 하다.⁶⁾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 과정 방침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본문이 아닌 참고 자료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제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 같은 내용들이 교육 과정의 서술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⁷⁾

4)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 세상, 2001

5)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201쪽

6)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2007, 224~225쪽

7) 유승렬, 「일제 강점기 연구와 국사교육」, 『시대전환과 역사인식』, 숲, 2001

2. 독립 운동 중심의 서술 비중

국정 교과서인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서술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표4>처럼 영역별 서술 비중을 분석하였다.⁸⁾

서술 비중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제시대를 각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서술 영역 구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네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교과서 속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으므로 교과서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민족 운동으로 설정하여 서술 비중을 비교하기로 한다.⁹⁾

<표4> 현행 역사 교과서의 일제시대 영역별 서술 비중

	합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민족 운동		
	쪽 수	비율 (%)	쪽 수	비율 (%)	쪽 수	비율 (%)	쪽 수	비율 (%)	쪽 수	비율 (%)	
중학교 『국사』	32	100	5	15	4	12	4	12	19	59	
고등학교 『국사』	20	100	2	10	3	15	5	25	10	50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	22	100	3	14	4	18	7	32	8	36	
『한국 근현대사』	금성	82	100	10	12	10	12	31	38	31	38
	중앙	96	100	11	11	13	14	34	35	38	40
	두산	101	100	11	11	13	13	32	32	45	44

* "승명현, 「7차 교육 과정 국정 교과서 국사와 대안 교과서의 비교분석」, 서강대, 2006"에서 기본 틀을 참고하여 다시 재구성하였음

먼저 중학교 『국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민족 운동으

- 8) 영역별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내용을 분석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여러 개의 영역이 복합된 것 역시 서술 내용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 포함시켰다.
- 9) 영역의 구분은 『역사학보』에서 매년 연구 동향을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는 회고와 전망 중 일제시대 부분을 참고하였다.

로, 전체 59%에 해당했다. 내용 구성 역시 일제의 수탈 정책과 민족 운동, 항일 투쟁과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립 정신과 자주 의식을 본받게 하고 고취시킨다는 교육 과정 상의 목표를 철저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고등학교 『국사』 역시 민족 운동의 비중이 50%로 가장 컸다. 특이한 점은 정치 분야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전 교육 과정들의 교과서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동일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제작된 다른 국정 교과서¹⁰⁾와 비교해봤을 때 서술 비중에 있어서 민족 운동의 비중이 36%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신 사회·문화의 서술 비중이 민족 운동의 서술 비중과 비슷한 32%로 증가하였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운동, 형평 운동, 청년 운동, 인구의 변화, 도시의 변화, 의식주 생활의 변화 등이 반영됨으로써 사회적 민족 운동이나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등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서술 관행과는 많이 달라졌다.

검정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역시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족 운동 서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중·고등학교 『국사』와 비교해봤을 때, 개정판 고등학교 『국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영역의 비중도 증가하여 민족 운동 다음으로 서술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사회사의 내용이 주로 사회주의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 사회적 민족 운동, 민족 교육 운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민족 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원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의 서술도 주로 경제적 침탈이나 경제적 민족 운동의 서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생활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금성이 "일본의 조

10) 2002년판 중·고등학교 『국사』를 말한다.

선 자본 지배", "나라 없는 설움에 배고픈 설움까지"라는 소항목을 편성하여 조선인 자본가 층부터 화전민,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경제 생활을 제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검정 교과서별 서술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근현대사 전체 서술 중 일제시대 서술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두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산은 <표4>에서처럼 민족 운동 서술 비중도 검정 교과서 중 제일 높았다. 이는 민족 운동 서술을 통해 민족을 강조하고자 하는 민족 중심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시대 부분 서술 체제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단원 구성이나 서술 비중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서술 체제는 매우 유사했다. 이 같은 변하지 않는 서술 체제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여전히 민족 중심의 서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 제7차 교육 과정은 이전 교육 과정 교과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의 부분 개정¹¹⁾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같은 교육 과정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달리 많은 점이 개선되었다.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 한인 애국단,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등 소단원 편성이 바뀌거나 의열단,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의 서술이 강화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제7차 교육 과정과 역사 교과서는 민족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민족 운동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와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

11) 제7차 교육 과정은 199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2년에 대대적인 내용 수정이 있었으나, 이를 교육계에서는 '제8차 교육 과정'이라 하지 않고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을 토대로 하여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민족 중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 '민족'만을 단위로 하는 역사 서술

일제시대에 민족 독립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1920년대를 전후로 우세했던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다.¹²⁾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입지는 미국과 우파·자본주의 계열의 공세에 의해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남과 북이 각각 정부를 구성하고 반공이 남한의 국시가 되면서 일제시대의 민족 독립 운동 교육과 서술에도 반공주의가 철저히 투영되고 관철되었다.

이후 역사적 진실 그대로를 가르치면 반공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시대의 다양한 민족 독립 운동 단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존재가 부정되어 왔다.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민족 대단결에 방해가 되는 사회주의자들을 역사의 희생양으로 삼아 오로지 역사 서술의 주체를 '민족' 단위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5차 교육 과정 부터였다. 일제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농민 운동, 노동 운동, 청년 운동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서술한 것

12)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을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양 세력으로 통칭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 국내의 민족주의계 세력이 민족 해방 운동의 선상에서 탈락하는 변화를 고려에 두지 않은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20년대의 문화운동을 민족 해방 운동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던 해방 후 남한의 지배 세력이 허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일제의 전시 통제가 극심하던 1940년대까지도 대중의 혁명적 운동을 주도하고 나아가 무장력을 기반으로 광범한 독립 운동 세력을 통일 전선의 형태로 단결시키는 데 중심이 된 것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조선 공산당이나 김일성으로 대표된 조국광복회 같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신동하, 「현행 역사 교과서 사회주의 서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과 이념적 갈등을 일으켜 독립 운동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했다고 서술함으로써 부정적인 면을 크게 강조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는 1920년대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해 “3.1 운동 이후 국내에 사회주의 운동이 유입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운동과의 대립으로 민족 운동의 전개에 혼선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 과정 준거안 역시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음을 이해한다.”고 본다.¹³⁾

이를 통해 교과서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의 방침들이 모두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서술되므로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사회주의 세력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국사』의 경우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서술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도움말에서 신간회에 대해 소개할 때 잠깐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자세한 서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학교 『국사』에 비해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정적인 서술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정 하에 새롭게 편찬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새로운 서술을 많이 서술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서술을 하여 민족 중심의 역

13) 지수걸,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준거안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2001

사 서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서술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다음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청년 운동, 여성 운동, 소년 운동 등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의 등장으로 민족운동전선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이념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¹⁴⁾ (강조 : 필자)

3.1운동 이후 전개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으로 대변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은 그 노선에 따라 이념과 이해를 달리하는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어 갔고 더욱이 민족주의 계열과는 사상적인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인해 **대립**이 격화되어 독립 운동 자체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다.¹⁵⁾ (강조 : 필자)

위의 서술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역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 중·고등학교 『국사』에 비해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서술을 함에 있어서 '혼선', '갈등',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주의 운동에 혼선을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같은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서술 태도는 신간회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간회는 1920년대 중반의 국내 민

14)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2007, 218~219쪽

15)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203쪽

족 독립 운동의 동향¹⁶⁾을 반영하여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세력이 결성한 합법적인 민족 협동 전선 단체로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 맞서 싸우며 전국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주로 각 지방의 지회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회 실시, 노동 야학 참여 등 활발한 민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년·노동·농민·여성 운동 등 각종 대중 운동과도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민족 독립 운동사 중 매우 중요한 단체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특히 신간회가 가지는 민족 협동 전선적 성격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서술을 해왔다. 이에 대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간회는 일제하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가들이 모두 참여한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 단체로서, 지방에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신간회는 일제의 민족 이간 정책에 휘말려 일부 세력이 독립이 아닌 자치를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기회주의자로 규정하고 배척하였다. (중략)

신간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민족 운동으로 확산되려 하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였다. 그 후, 신간회는 활동 방향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 해산되고 말았다.¹⁸⁾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체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¹⁹⁾

16)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념적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이 점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진 것이 다시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 내부에서 일부 세력이 자치 운동을 벌임에 따라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의 분열을 보게 되었던 상황을 말한다.

17) 배영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신간회 서술 변화」, 『전농사론』 11,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5

1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287쪽

1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238쪽

위의 서술 내용을 통해 보면 중·고등학교 『국사』 모두 신간회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모두 참여한 독립 운동 단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 운동을 추진한 매우 중요한 단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신간회 해체 원인에 대해서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갈등으로 해체되었다고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는 출판사에 따라 신간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서술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신간회 해소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다음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두산의 일부분이다.

신간회와 근우회는 출범 직후부터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 계열 간의 이념 대립이 재발하고,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다가 정책 노선을 변경한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자와의 협동 전선을 포기함으로써 신간회와 근우회는 해체되고 말았다.(1931)²⁰⁾

두산의 경우 위의 서술 내용처럼 신간회 해소 원인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간회 해소는 사회주의 계열만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 세계사적 흐름과 신간회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같은 종합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금성과 중앙의 경우 다음의 서술 내용처럼 신간회 해소의 원인을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 세력 내부의 우경화에 두고 있다.²¹⁾

민중 대회 사건 이후 신간회 내부에서는 타협적인 합법 운동을 강조하는 인물들

20)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206쪽

21) 주진오 외, 227,230쪽; 김한중 외 204,210쪽

이 등장하였다. (중략) 신간회의 해소는 1930년대에 들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우경화된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지만,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략)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갈라서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국내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은 민중 대회 사건 뒤 국내 정세와 맞물리면서 신간회 해소에 박차를 가하였다.²²⁾

신간회 본부는 이러한 대중 운동을 앞장서서 지도해 나갈만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신간회 지회의 회원들은 대중 투쟁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다른 형태의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결국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과 내부의 이념 대립, 그리고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코민테른의 지시 등의 영향으로 1931년에 해체되었다.²³⁾

이처럼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신간회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고 항일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접근하게 되어 역으로 친일파나 민족개량주의자 등의 언행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²⁴⁾ 또한 그 나름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주의 운동에 고유한 특성을 보지 못하게 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²⁵⁾

따라서 앞으로는 교과서를 서술함에 있어서 그동안 민족의 탈을 쓴 반공에 의해 은폐되고 누락되어졌던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보다 다양한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의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2)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2007, 210쪽

23)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2007, 225쪽

24) 신주백, 「저항 그리고 형상화와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25) 신동하, 「현행 역사 교과서 사회주의 서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중심의 문화사 서술

일제시대 내내 일본은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하여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왜곡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한반도 내에서도 민족정신과 고유문화를 수호하려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²⁶⁾

이 같은 일제시대의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한국 역사 교과서 서술에 등장하게 된 것은 '민족'만을 역사 서술의 단위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자'들과 대립한 '민족주의자'들의 문화 운동을 무력 항쟁, 외교 항쟁과 비견되는 독립 운동의 '제3의 노선'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²⁷⁾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국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독립 운동"²⁸⁾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도 아래의 서술 내용에서처럼 민족 문화를 일제와 대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항 문화이자 전통 문화이며, 조선인이 행한 모든 문화 활동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⁹⁾ 다음과 같은 교과서 서술이 가장 대표적이다.

문학과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살리고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3.1 운동 이후 한용운, 심훈 등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민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을 많이 썼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고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되면서 문학 활동도 탄압을 받아 크게 위축되었으나, 운동주, 이육사, 이상화 등은 민족혼을 일깨워 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26)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2007, 226쪽

27) 이지원,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 민족주의와 근대 주체」, 『역사교육』 95, 역사교육연구회, 2005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1-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2001

29) 이지원,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 민족주의와 근대 주체」, 『역사교육』 95, 역사교육연구회, 2005

음악에서는 봉선화, 고향생각, 반달 등 민족적 감정이 담긴 작품이 나왔다. 이들 노래는 동포들이 즐겨 애창하여, 잃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민족의 정신적 단결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³⁰⁾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봉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³¹⁾

중·고등학교 『국사』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이 같은 서술을 통해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여기에서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술 방식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민족 문화'도 단일하고 통시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하여 일제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일제와 대립하는 저항 문화가 곧 전통 문화"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나 분명 이 시기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만한 놀이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할지라도 모두가 모이면 늘 '민족'만을 생각하고 흠어지면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몸을 바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일제시대 문화와 관련된 서술 내용은 대부분 저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말 개신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중·고등학교 『국사』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아래의 서술에서처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신사 참배 거부를 서술하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도 일찍부터 사회사업과 민중 계몽에 힘써왔는데, 특히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 참배에 항거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가 투옥되는 희생을 당하였

30)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290쪽

3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6, 326쪽

다.³²⁾

기독교는 1930년대에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많은 신자가 투옥되거나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였다. 천주교는 민중 계몽 운동에 주력하였으며, 일부 신자는 만주에서 무장 항일 운동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³³⁾

특히, 개신교의 남장로 선교회는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그 지도자들의 일부가 체포, 투옥되는 등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다.³⁴⁾

이 같은 과장된 서술 때문에 종종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행동들이 모두 일제에 저항한 독립 운동으로 강조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제7차 교육 과정의 역사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소위 친일 부역 세력들이 교과서 서술에 등장하는 것은 송병준, 이완용뿐이다. 그나마도 차수에 따라 누락된 적도 있으며, 일제시대 말기 친일로 전향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식민 초기 활동만 부각시켜 민족적 인물로 포장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륙 침략 이후 일제는 우리 문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면서 군국주의 찬양을 강요하였다. 일부 문인은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육사, 윤동주 같은 저항 시인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음악계에서는 흥난파와 현제명 등의 작품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어울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국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애국가 합창을 넣은 '한국 환상곡'을 작곡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표현하였다. (중략)

1930년대 이후 일제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술 활동을 통제하고 탄압하였다. 이 때, 일부 예술인이 변절하여 친일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광복 후 예술계

3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289쪽

3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6, 326쪽

34)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2007, 237쪽

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³⁵⁾

위의 서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난파와 현제명의 경우처럼 일제시대 말기에는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그들의 음악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어울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서술하면서 그들의 초반 업적만 칭찬할 뿐 그들의 친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홍난파와 현제명 등 많은 친일 인사들의 생애와 업적이 그리고 일제시대 문화·예술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왜곡되어 왔다.

결국 교과서는 '우리 민족'이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모두 대동 단결하여 항쟁에 나섰던 것으로 묘사해야 했고 했기 때문에 친일 세력과 같은 '반민족 세력'을 등장시킬 경우 스스로 모순에 갇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식민지 조선인 사회의 구성원 간에 다양한 편차가 있음을 서술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모두가 '우리', '우리 민족', '한국인'이라는 단일 민족 담론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저항 쪽에 무차별적으로 몸담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시대 당시에 반민족적 인사, 개량적인 사람도 있었으며 전시동원체제기에는 억압당한 징용, 징병자, 일본군 '성노예'도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반영된 두산과 중앙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친일파'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191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는 최남선과 이광수였다. 최남선은 새로운 시 형태를 꾀한 신체시를 발표하여 근대시 발전에 공헌하였다. (중략)

이광수는 1917년에 무정을 발표하여 계몽기 신문학을 총결산하였고 1910년대 소설이 1920년대 본격적인 근대 소설로 넘어가는 데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

3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6, 326쪽

그는 소설 이외의 여러 분야에도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 (중략)

1930년대 일제가 만주 사변을 계기로 군국주의화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문화적 탄압도 강화되었다. 창작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고 일제와 타협하는 길을 피하여 역사 소설, 대중 소설을 쓰거나 아예 집필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을 지키는 문인들도 있었다. 그 반면 최남선, 이광수 등과 같은 일부 문인들은 일제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육사, 윤동주 등과 같이 민족의 양심을 지키고 항일적인 작품을 쓰다가 일제에 수난당한 문인도 많았다.³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문인 중에는 이광수, 최남선 등과 같이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찬양하며 한국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암흑시대를 살아왔던 이육사, 윤동주 등은 독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강렬한 저항 의식과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시를 발표하여 친일 문학가들의 활동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 주었다.³⁷⁾

그러나 일제 말기에 홍난파와 현제명 등은 친일 음악 활동을 전개하고,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동조하여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³⁸⁾

위의 서술에서처럼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비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부만이기도 하지만 한 인물의 민족적인 성향 이외에도 그 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역사학계가 일제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민족·반민족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청소년·계급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6)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236쪽

37)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2007, 255쪽

38)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2007, 255~256쪽

그러나 아직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제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세력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분단 국가주의와 임정법통론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 전쟁과 분단을 통해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미·소 분할 점령에 이은 한국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가장 지배적이었던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공주의라는 새로운 근대 국가 이념에 의해 단절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³⁹⁾

한국 전쟁 이전까지 남북한을 연결시켜주던 민족이라는 유대감은 문화적, 종족적 일체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유대감을 체제와 이념적 지향에 기준한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에게 각각 공산주의자는 "소련의 앞잡이", 반공주의자는 "미제국주의자"로 적대시 하게 되었다.⁴⁰⁾

결국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민족에 대한 동질감은 이전과 달리 종족이나 문화가 아니라 공산주의, 반공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하게 되었다.⁴¹⁾

민족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남한과 북한은 각각 '국가 국민'으로서 일체감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국가주의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국가주의는 곧 정통론과 연결되었다.

정통론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술의 주체를 '우리 민족'에 두는 민족주

39) 한재은,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과 교육」,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40) 한재은,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과 교육」,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41) 이관후, 「국가 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 한국 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의 또는 국가주의 사관을 가지고 교과서 서술을 하게 될 때 특히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민족의 정통이란 혈통적 혹은 문화적 정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인식이 전제된 역사 서술들은 민족의 초역사성을 정당화 하고 비주류나 비정통에 대한 구분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명분을 가진다.

이 같은 정통론을 활용해 일제시대를 서술한 대표적인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서술 부분이다. 임시정부 정통론은 3.1 운동의 열매가 임시정부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임시정부의 적자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통론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곧 주권 회복이고 임시정부는 일제시대 민족 운동을 총지휘했던 총 본산이라고 여겨 임시정부 정통론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임시정부를 서술함에 있어서 전체 민족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어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민족의 정통을 이어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는 이후 광복의 그날까지 민족 독립 운동의 중추 기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면서 이것들을 근거로 내세워 임시정부 정통론을 정당화하고 있기도 하다.⁴²⁾

그러나 과거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강조되어 오던 임시정부 정통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은 1980년대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대표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초기 임시정부의 한계가 제시되고 이와 관련하여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 운동 노선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른 것으로 임시정부가 발족

42) 지수걸,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준거안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2001

초기 국경과 접하고 100만에 가까운 교포와 수천 명의 무장독립군이 있던 만주 지역을 버리고 본국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조선인이 별로 없는 상해로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외교론에 주력하여 결국 무장 독립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고 국내외 독립 단체를 총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⁴³⁾

또한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만 해도 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 등을 포괄한 최고의 기관이었고 국민의 기대도 컸지만 1920년대 접어들어 임시정부 내에서 좌익세력이 이탈한 사실과 이어 개조·창조파로 갈라짐으로써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는 독립 운동상에서 지도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내부에서의 분열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였다. 이후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을 상당 부분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1940년대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정설화 되어 가고 있다.⁴⁴⁾

이처럼 초기 임시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 과정까지의 교과서들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3.1운동 이후의 민족 운동을 임시정부가 주도하여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부터는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정통'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제6차 교육 과정 교과서에 비해 초기 임시정부의 한계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였다. 두산을 제외한 제7차 교육 과정 교과서 모두가 아래의 서술에서처럼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외교 우선주의를 추구한 초기 임시정부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는 독립 운동 방법론과 맞물려 있었다. 외교론의 입장에서 있던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두자고 한 반면, 독립 전쟁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43) 윤경로, 「식민지 시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보』 128, 1990

44) 이승은, 「검정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차별성 분석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하이로 하는 대신 연해주의 이동휘 등 일부 세력이 상하이 의정원에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 선정 문제로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신채호 등은 그가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낸 사실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⁴⁵⁾

임시정부의 투쟁 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상하이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의 주장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결정에 무장 투쟁을 주장한 독립 운동가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이들은 상하이에 있으면서 만주의 무장 투쟁을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부 무장 투쟁론자들은 임시정부를 떠나기도 하였다.⁴⁶⁾

특히 위의 서술 내용에서처럼 금성과 중앙은 임시정부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제6차 교육 과정에서의 임시정부 정통성과 대표성의 관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구체적인 활동 보다는 위치 문제와 독립 운동 방법론, 외교론의 한계와 관련하여 임시정부 내의 갈등의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술은 기존에 임시정부를 과도하게 강조하였던 서술에서 탈피하여 임시정부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처럼 제6차 교육 과정 교과서의 서술 기초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 대표 회의 이후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과 대립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또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그리고 인력과 자금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동녕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노력으로 조직이 정비 유지되어 조국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⁴⁷⁾

45)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2007, 177쪽

46)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2007, 189쪽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 이래 민족 운동계의 분열과 대립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항일 독립 운동의 기지로 자리 잡고 있던 만주가 일제에 점령되자 우리 민족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의 사기를 높일 획기적 방안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였다.

이에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인 김구는 강력한 항일 의거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한국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제에게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킬 거사를 계획하였다.⁴⁸⁾

위의 서술에서처럼 두산은 전체적으로 임시정부의 활동 사항을 자세하게 제시한 반면 임시정부의 한계와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 등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여 임시정부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제7차 교육 과정 교과서의 임시 정부 서술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임정법통론과 국가주의에 대한 서술은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두산을 비롯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임정법통론과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술을 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편협한 국가주의 사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7)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176쪽

48)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184쪽

IV. 결론

한국 사회는 최근 국제 결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들을 '코시안'이라 부르는데 이 아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학 나이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로 이주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국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바탕으로 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고 서술함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역사 해석의 단위로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진 개념인 '민족'을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이 독립된 국가를 영위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현하고 이후 독립 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된 민족 중심의 역사관이 정치적 독립을 회복한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역사 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은 역사를 민족의 시각에 맞추어 해석하게 할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라는 틀에 모든 것을 맞추게 하여 이것만이 역사인 것처럼 고정된 사고를 가지게 한다. 이는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 가운데 국가와 민족 단위의 삶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나 국가나 민족의 가치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역사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행한 한국 역사 교과서의 서술 체제와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족 중심 역사 서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과 그를 뒷받침 해

줄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역사 서술에 있어서 논리적 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침략과 저항'이라는 일관된 구도로 일제시대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일제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서술 분량은 매우 적고 식민 정책의 단기적 수탈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식민 지배 체제 구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식민 지배 정책의 성격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역사 서술의 논리의 개연성 역시 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서술 체제와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구체적 사료를 바탕으로 식민 지배 정책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하는 역사 교육을 행하려면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 주체들의 삶을 쟁점화 하는 교과서 서술이 필요하다. 서술 주체는 현재의 우리지만, 서술 대상은 현재의 우리와는 다른 과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다양한 역사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주제에 따라 서술의 주체를 달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안에 공식화된 정답 보다는 수준 높은 질문이 가득 담겨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단원 도입이나 탐구 활동 등에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연계 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6
김광남 외 4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김종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7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출판사, 2007
김홍수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 2007
주진오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7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7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 과정-사회과 교육 과정』, 1997

2. 연구 저서

- 국사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검인정 국사 교과서 교원 연수』,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한중 외,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 책과 함께, 2005
김한중, 『역사 왜곡과 우리의 역사 교육』, 형설 출판사, 2001
송춘영, 『역사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 출판사, 1999
이만열,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일본역사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외, 『한국사 교과서 희망을 찾아서』, 역사 비평사, 2003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사학 법인 연합회 정책실, 2002
정선영 외, 『역사 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3. 연구 논문

- 권오현, 「탈식민의 과제와 한국의 국사 교과서」, 『역사교육논집』 34, 2005
- 권세경, 「세계화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역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영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역사 교육의 문제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윤경,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의 일제시대 노동운동에 대한
서술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진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남정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그 한계와 가능성」, 『역사비평』 59, 2002
- 도면희, 「한국 근현대사 서술에서의 민족·국가 문제」, 『역사비평』 58, 2002
- 문찬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서술 추이
분석」,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배영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신간회 서술 변화」, 서울 시립대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 백은경, 「일제시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 검토」, 고려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서중석, 「한국 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16, 2002
- 서재현, 「교과서 포럼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성대훈,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
서술 문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손화성, 「'독립운동사' 서술을 둘러싼 논쟁과 대안」,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9

- 승명현, 「제7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국사와 대안교과서의 비교분석」,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신동하, 「현행 역사교과서 사회주의 서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신혜수, 「중등 국사 교육과 '대안 교과서'의 등장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양정현, 「『국사』 교과서 국정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4, 2002
- 양정현, 「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최근 논의」, 『역사교육』 95, 2005
- 양지수,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계열 학생운동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양치구, 「고등학교 『한국문화사』의 내용구성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우승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 식민지 시기 서술 분석」,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2002
- 유연옥, 「6.7차 중학교 국사교과서 비교 분석」,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유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 『학생생활연구』 4, 2000
- 윤희정, 「제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의 구성 틀과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명희,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82, 2002
- 이승은, 「검정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차별성 분석 연구 - 일제 강점기를

-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주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시정 방향」, 『공공정책연구』 23, 2007
- 이지원,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 민족주의와 근대 주체」, 『역사교육』 95, 2005
- 이창성,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필현, 「남북한 역사교과서의 국내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서술 비교」, 한국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임희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체제의 개선방향 모색」,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전종익, 「고등학교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조연주, 「국정 중등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지수걸,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 지수걸,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준거안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2001
- 최형숙,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한재웅,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한재은,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과 교육」,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8

Abstract

National Center for Korean history textbooks describe the current analysis

Jin Soo Ji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on the wave and put yourself in China's Northeast Project, "What about in Korea textbooks?" Became the question. Japan and China, as well as appearing at the Korea Society of exclusive nationalism because you Is not that history textbooks will became suspicious.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people in the center of Korea's history textbooks of history, was to analyze.

Based on this lesson, one chapter describes the configuration and system descriptions, such as gravity, two chapters describe the content analysis and narrative and descriptive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center of history and looked at what might be involved. It also describes the history of the people around this cause any problems can be thought about.

First, Korea's history textbooks describing information systems and compare the analysis results, highlighting a variety of folk narrative and descriptive information system, they were hiding everywhere. Because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invaded South Korea could not lead an

independent country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ce movement by ethnic utilized as a means of restoring the center's history is a political independent, even today, 50 years of youth through the medium of textbooks would have to be passed.

The center of the nation's students of history, national history, only his ex-wife as a framework tailored to recognize the history and the fixed frame of thinking should be able to escape. The national and ethnic variety of human life, only life is important recognition of the unit, state and national recognition of the value that's important to only focus will be forced.

Therefore, we describe a textbook, especially as colonial subjects in the lives of various historical issues to the narrative, aggression and resistance of the structure beyond the dichotomy of nature by presenting specific facts and logical probability can secure the narrativ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In addition, various everyday life history, and even the narrative reflects the history of nations around the world in education and to move away from textbooks that describe Korea's history has education been better.